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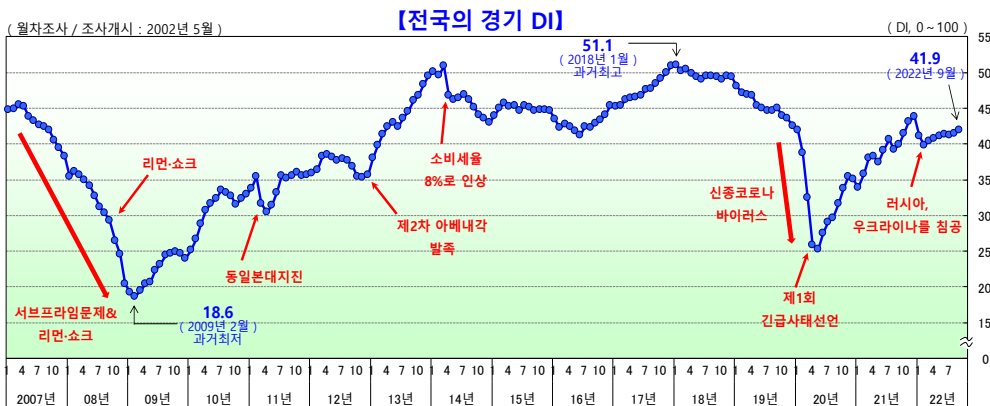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개선

~ 감염자수 감소로 인한 인파 증가가 기여하였으나 엔저(円低)의 영향이 우려 요소 ~

(조사대상 2만 6,494사, 유효회답 1만 1,621사, 회답율 43.9%,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2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1.9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일부에서 긴급 수요도 발생하는 등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향후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락세 요인도 많으나 경제정상화를 향한 플러스 요인도 나타나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개 업계 중 『서비스』 『도매』 등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관련이 견조로 추이한 한편 10월 이후 가격인상을 앞두고 『도매』 등에서 긴급수요도 나타났다. 한편 원재료 급등 및 엔저(円低)경향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업단가 DI는 20개 업종에서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31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개선, 15개 현(県)이 악화, 1개 현(県)이 보합으로 나타났다. 관광지역에서의 소비관련 및 공공공사 수주, DX등 소프트 관련이 상향하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2개월 연속 개선된 한편 「대기업」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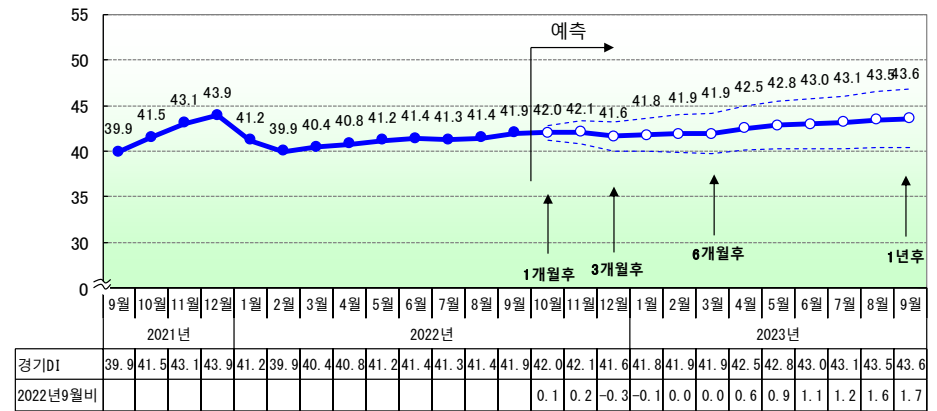
< 2022년 9월의 동향 : 소폭 개선 >

2022년 9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1.9로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9월 국내경기는 원재료 가격 급등 및 엔저(円低)경향이 계속된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수가 소강상태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추이하였다. 예를 들자면 10월 이후 가격인상을 앞둔 일부에서 긴급수요 발생이 나타났다.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수요가 왕성한 한편 서서히 인파가 돌아오는 개인 서비스업의 체감경기가 상향하였다. 한편 원재료나 전력 가격 상승 및 인력부족 재연, 식품을 포함하는 생활필수품의 잇따른 가격인상, 자동차 제조업체의 감산·생산정지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국내경기는 일부에서 긴급 수요도 발생하는 등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 향후의 전망 :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 >

향후 1년간 정도의 국내경기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확대에 따른 사회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제한이 서서히 해제되고 사회 전체가 정상시로 돌아가려는 힘이 경기를 지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DX 등 디지털 수요의 확대 및 관광 수요 환기책 실시, 각종 경제대책,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복 소비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자원가격 상승 및 엔저(円低)진행에 따른 식품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 및 인력 부족 고조, 각국의 금융긴축정책에 따른 경제감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등 경기를 하락시키는 국내의 요인도 많다. 향후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하락세 요인도 많으나 경제정상화를 향한 플러스 요인도 나타나 대체로 보합 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을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